

광양시, '운동주 테마 관광' 활성화 관광객 유치 박차

중국·일본 등 연관 지역과 연계 관련 관광상품 운영 업체 중심 인센티브 지원... 개별관광객도 "역사·문화 함께하는 관광도시"

일제강점기 한글로 쓰인 운동주의 친필 시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보존한 광양시가 운동주 시인과 관련한 관광 자원을 통해 '인바운드(국내 유입) 관광' 활성화를 모색한다.

광양시는 운동주 시인과의 관계성, 역사성, 장소성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운동주의 생애와 문학적 유산을 기리는 '운동주 테마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운동주 테마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광양을 비롯한 중국, 일본 등 운동주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지역을 연결하는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하고 국내외 관광객을 동시에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대상은 운동주의 삶과 연관된 국내외 관광지를 연계한 여행상품을 운영하는 여행업체 및 1인 이상 개별관광객이다.



광양시 진월면에 위치한 운동주의 유고를 보존한 정병욱 가옥과 작은 사진은 연희전문시절 함께 하숙을 하는 등 돈독한 사이였던 운동주(왼쪽)와 정병욱.

지원요건은 △국내 지정 관광지 1곳 이상 및 국외 지정 관광지 1곳 이상 방문 △광양 내 1박 이상 숙박 및 광양 내 식당 3식 이상 이용 △SNS 인증 등으로, 국내 지정 관광지는 '운동주 유고 보존 정병욱 가옥'이며, 주변 관광지로서 섬진강 빛 스키어, 배알도 섬정원 등이 있다. 국외 지정 관광지는 중국의 운동주 생가와

묘지, 명동학교, 용정중학교, 일본의 릿코 대학, 도시사대학, 아마가세 구름다리 등이 포함된다.

올해부터는 기존 2식 이상이었던 지원요건을 3식 이상으로 확대하고, 1인당 식비 기준도 7000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화했다.

또 광양 관광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별관광객의 경우 SNS 인증을 필수 조건으로 포함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개시일 하루 전까지 사전 계획서 및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개별관광객의 경우 팀 대표자는 만 18

세 이상이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이 광양 외 지역 거주자여야 한다. 여행업체를 통해 운동주 테마 관광상품을 이용하면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1인당 1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누리집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양시 관광과 관광마케팅팀(061-797-285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란 광양시 관광과장은 "이번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광양의 역사와 문화가 함께하는 관광도시 이미지를 확대하고 활발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운동주 테마 관광상품 활성화 및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운동주 테마 관광상품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해당 사업을 통해 여행사와 개별관광객 등이 총 11회 광양을 찾았으며, 후쿠오카 운동주 시 남송회, 시인 운동주를 기념하는 릿코의 모임 회원들을 초청해 2박3일 팸투어를 진행하는 등 'G-인바운드 관광'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광양-안영준 기자

'감동정원 조성 사업' 시민 참여자 모집

광양시는 '푸른 광양 만들기' 범시민운동 확산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2025년 감동정원 조성' 사업에 함께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동정원 조성 사업은 시민들이 직접 정원을 디자인하고 조성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로, 단순한 녹지 확충을 넘어 시민이 주도적으로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녹색도시 광양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는 마동생태유원지(마동 328번지) 일원 약 3000㎡ 부지에서 진행된다.

정원에 관심 있는 광양시민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유형은 △가족이 함께하는 '가족정원' △청소년과 대학생이 주도하는 '학생정원' △노년층이 가꾸는 '시니어정원' △기

업·동호회가 협력하는 '기업·동호회정원' △정원 전문가들이 예술적 감각을 반영하는 '작가정원' 등으로 나뉜다.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다. 이메일(eunbin1006@korea.kr), 팩스(061-797-4159), 방문 접수(광양시청 녹지과)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모집이 완료된 후 오는 3월10일부터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오는 5월 중 하루를 정해 정원 조성 행사를 개최하고 참여자들과 함께 정원을 완성하는 것은 물론, 행사 당일에는 가드닝 교육, 정원 체험 프로그램,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운영한다.

광양-안영준 기자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추진

시비 6억원 투입... 2년간 3%

광양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5년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광양시에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폐기물처리업 등을 2년 이상 경영하고 있는 업체에 3% 이차보전금을 2년간 지원(최대 3억원 융자 한도)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102개 업체에 7억5000만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총 200억원 융자 규모의 이차보전금 6억원을 지원해 내수 침체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기업의 융자지원 수요 증대에 대응할 방침

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광양시 최고경영인상, 최고근로인상, 산업평화상 수상기업과 여성기업 등 우대업체는 4%의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 업체는 광양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7개 금융기관 10개 지점 중 택 1)에 방문해 사전 대출 상담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융자신청서와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류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 공고, 분야별정보(산업경제/단지-기업하기좋은도시광양-기업지원소식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투자경제과 기업지원팀(061-797-3122)에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광양시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업기계 현장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농업기계 현장 실무 교육' 교육생 모집

광양시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사용법 교육을 위해 '2025년 농업기계 현장 실무 교육'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25일부터 3월7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며, 농업기계에 관심 있는 광양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강의는 사고 사례, 음주운전 위험성 등 사용 시 주의사항에 대한 이론 강의와 함

께 해당 기종을 직접 운전하는 실습 과정으로 구성된다.

특히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성친화형 농업기계 교육'과 대부분 수작업으로만 경작하는 밭 작업을 기계 동력으로 대체하기 위한 '밭농업 기계화 과정'이 일정 포함돼 기계 조작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농업인 크리에이터 2기 교육생 모집

광양시는 '2025년도 농업인 크리에이터 2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업인 크리에이터 교육은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농가공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디지털 영농 역량을 강화해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

광양시는 연 2회 총 4개 과정으로 2기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3월부터 5월까지 '사진촬영반'과 '동영상촬영반'이 운영되며, 6월부터 7월까지는 '다이트커머스반'과 '팜파티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3월에 개설되는 '사진촬영반'과 '동영

상촬영반'은 각각 12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광양시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청년 창업농(만 45세 이하)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기술보급과 기술지원팀(061-797-3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교육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기술보급과 기술지원팀(061-797-3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안영준 기자